

TDB경기동향조사(전국) - 2017년 6월 조사 -

2017년 7월 5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하기 성과급으로 인한 개인소비의 증가로 회복이 지속 ~ 설비투자확대와 도쿄올림픽특수에 기대감 고조 ~

(조사대상 2 만 3,927 사, 유효회답 1 만 45 사, 회답률 42.0%,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2017년 6월 경기DI는 전월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6.8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약간의 개선세로 추이되었다. 국내경기는 하기 성과급이 개인소비를 자극하였으며, 자동차관련생산의 호조와 IT수요의 확대의 기여로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불투명한 해외정세가 우려요소이지만 수출과 생산의 호조로 인한 설비투자의 확대와 도쿄올림픽특수로 회복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 『소매』 『서비스』 등 5개 업계가 개선, 『운수·창고』 등 4개 업계가 악화, 『건설』 이 포함되었다. 특히 내구소비재관련소매업이 상향되었다. 또한 IoT나 AI 등의 소프트웨어개발도 활발화되고 있다. 『운수·창고』에 관련해서는 트럭운전수 등 날로 진행되는 인력부족의 심각성으로 인해 도로운송부문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었다.
- 『키타칸토』 『호쿠리쿠』 『토카이』 등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개선, 『홋카이도』 『큐슈』 2개 지역이 악화, 『토호쿠』가 포함되었다. 『제조』나 『소매』가 8개 지역에서 개선되는 등 각 지역의 기간산업의 개선이 전체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지만, 심각한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운수·창고』는 9개 지역에서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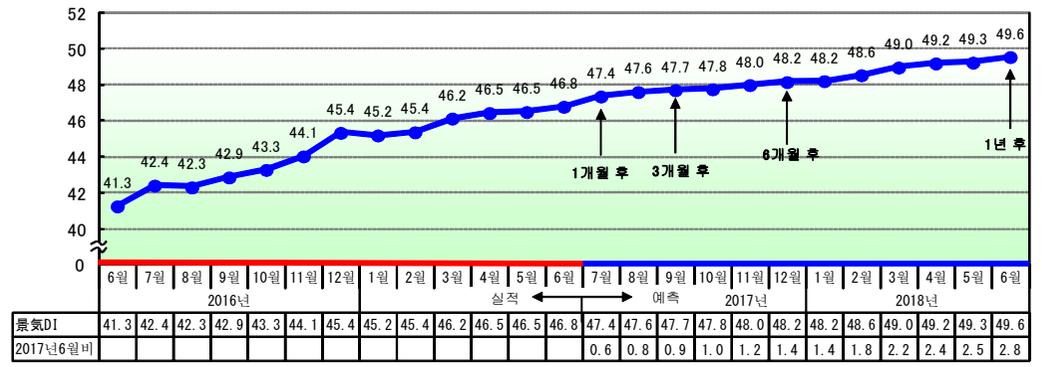


< 2017년 6월의 동향 : 회복이 지속 >

2017년 6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6.8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약간의 개선세로 추이되었다. 유효구인배율(5월)이43년 3개월만에 고수준을 보여 넛케이평균주가도 1년반 만에 2만엔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하기 성과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및 총액의 증가가 전망되는 점도 소비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내구소비재관련이 호조인 『소매』가 동 1.9포인트 증가하며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국내나 중국수출용 자동차관련의 생산호조 및 전자부품의 생산확대의 영향을 받은 『제조』, IT수요확대가 호영향을 주고 있는 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가 경기를 끌어올렸다. 한편으로, 심각한 트럭운전수부족으로 인해 『운수·창고』는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하기 성과급이 개인소비를 자극시키고 있으며, 자동차관련생산의 호조와 IT수요확대가 기여하여 회복이 지속되었다.

< 향후전망 : 회복세가 지속 >

국내경기는 세계경제의 확대에 의한 수출과 생산호조의 지속, 그리고 도쿄올림픽개최를 위한 건설관련특수나 성장전략추진이 체감경기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호조인 기업업적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생력화(省力化)수요를 바탕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여, 양호한 고용환경을 통해 개인소비가 완만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으로 해외에서는(FRB)의 거듭되는 금리인상과 자산축소, 일본과 유럽EPA(경제제휴협정)의 행방에 주목이 모아진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정치경제 정세와 표면화되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 등 경제전망 불투명성도 존재한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불투명한 해외정세가 우려요소이지만 수출과 생산의 호조로 인한 설비투자의 확대와 도쿄올림픽특수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